

포스트 시대 교회의 역할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중심으로-*

The Role of the Church in the Era of Postism
-Centering o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김철수 (Cheol-Soo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to identify some features of 'postmodern novels'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oday's churches depicted in it, seeking the future roles for the church to play in the era of 'Postism.'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Christian criticism and response to postmodernism, this study consults the thesis of Vauddie Baucham Jr., who advocated "The Supremacy of Christ." The novel, which features the theme of lesbianism, is divided into eight parts in total, each titled as the first eight volumes of the Old Testament respectively. The contents parody the Old Testament to the trajectory of Winterson's own life, ridiculing an exclusive Christian society deeply rooted in a small community. In addition, the novel implements the narrative technique of "the postmodern novel" to maximize the connotation and symbolism by inserting legends and fairy tales in it. The main speaker keeps her postmodern life in her community, criticizing the church, the minister and her mother, who is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the church. Later, the narrator tries to persuade the readers to understand her identity as a lesbian girl on the basis of her mother's changes in expression. However, Jeanette's mother, who is sincerely dedicated to worship, missionary work, and service activities identifies with a "church-like mother," who has endured and overcome the age of chaos, and, in whom the image of a "mother-like church", full of grace, truth and love, being able to preserve its members and save the world is well-embodied.

Key words : Jeanet Winterson,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lesbian novel, postmodernism, the supremacy of Christ, the role of the church

* 2020년 11월 19일 접수, 12월 21일 최종수정, 12월 2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Chosun University) 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charles@chosun.ac.kr

I. 들어가는 말

문학과 문화예술의 역사에서 ‘포스트(Post-)’라는 접두사는 권력과 조직 및 구조 등의 모든 기득권에 의해 억눌리고 감추어져 있던 세력들의 자의식적인 발현과 관련이 있다.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 등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포스트주의(postism)는 기존 세력의 경직성과 억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났던 균형의 파괴를 조롱하고 전복하여 새로운 변증법적 혹은 대화적 균형을 추구하는 프로세스로 여겨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인해 온 인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는 COVID-19 역시, 한 편으로, 그동안 인류에게 끼쳐 온 엄청난 충격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새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 제압되어 오곤 했던 바이러스(virus)가 또 그 인류에게 조롱과 전복으로 도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류는 이를 통해 생활의 전반에 걸친 재고와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COVID-19의 창궐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조직이 기독교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14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pest)이 중세의 기독교 신앙을 와해시키고 그 결과로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이름의 인본주의를 촉발했듯이, 오늘날의 모든 포스트주의들에 의해서 그 권위를 도전받고 있던 기독교는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위기 또는 기회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대에 예술과 문화 및 시사 등의 다양한 매체들은 교회를 단지 ‘축자적 원리에 근거한 아집에 사로잡혀 몽니를 부리는 지극히 배타적인 존재’로 치부하며 갖가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적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위축되어 가는 교회의 위상을 재고하고,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자극과 세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적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영국의 여류 작가인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의 첫 소설『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위 포스트모던 소설의 특징과 그 속에 묘사된 오늘날 교회의 좌표를 확인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선 이 작품이 1985년 출판 직후 가장 우수한 신간 소설에 수여하는 휘트브레드 베스트 첫 소설상(Whitbread Best First Novel Award)을 수상하였고, 1990년에는 윈터슨 자신이 쓴 대본을 통해 TV의 3부작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BBC의 황금 시간대를 장식했는

데, 그 작품 역시 뜨거운 호응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뛰어난 문학과 대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 여덟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소설은 각 장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의 첫 여덟 권의 제목을 붙이고 있으며, 각 부의 내용은 해당 구약성경의 내용을 윈터슨 자신의 삶의 궤적에 맞추어 패러디하면서, 작은 지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폐쇄적인 기독교 사회의 억압적인 한 면모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간접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성경을 패러디한 표면적인 구조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독백적 내러티브의 중간중간에 ‘아서 왕’(King Arthur)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기사 ‘퍼시벌 경’(Sir Perceval)의 이야기나 마법사 ‘위넷’(Winnet)에 관한 동화 등을 삽입하여 작품의 함축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소설’의 서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자전 소설, 성장 소설, 여성 소설, 레즈비언 소설, 그리고 포스트모던 소설 등 복합적인 정체성을 띠고 있는 이 작품은 민감한 사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윈터슨은 ‘21세기의 버지니아 울프’라는 별명과 더불어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단일한 중심’이나 ‘거대담론’에 도전하며, 모든 진지한 논리들을 가벼운 유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의 한 중심에서, 같은 정신과 기법으로 쓰여진 소설 작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복음 전파의 베이스캠프로서 포스트 시대를 아우르며 선도할 교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혹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도전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응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존 파이프(John Piper)와 저스틴 테일러(Justin Taylor)가 함께 펴낸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II. 포스트 시대와 그리스도의 탁월성

진 에드워드 베이스 2세(Jean Edward Veith, Jr.)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학자와 문화예술가들이 기독교적 가정(Christian assumption)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전공이나 관련 영역이 충돌하게 될 때 발생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다. 그 첫째가 “세속주의 학계의 권

력과 위세에 놀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현대의 유행과 가치관에 따라” 기독교의 교리를 재해석하여 타협함으로써 “신학적 자유주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Veith 11-12) 따라서 그는 기독교인들도 “지성을 사용하고 계발(use and develop their minds)”(Veith 11)하여 현재의 풍조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현대적 사고의 윤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몇 가지 도전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 진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모든 지식을 포용하고 호기심, 창조성, 그리고 배움의 모든 에너지의 기초를 제공하는 틀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알아야 한다.(Veith 12)

데이빗 웰즈(David Wells) 역시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과 더불어 오늘날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풍조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경험의 공허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구원론(soteriology)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이 세상의 의미의 구조나 도덕성, 보편적인 실행 가능한 세계관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기도록 부추기고, 모든 현실을 자아 속으로 붕괴시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파악할 의미의 모든 흔적을 먹어 치운다. ‘세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서양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이자 그분의 분노의 현재 결과물인 인간 경험의 공허함,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 무게를 더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현실감을 더한다.”(Wells 42)

그런가 하면 보디 보챔 2세(Voddie Baucham Jr.)는 “우리 문화에서 경쟁하는 두 가지 주요한 세계관”을 각각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과 “세속적 휴머니즘의 포스트모던 버전(a postmodern version of secular humanism)”으로 명명하고, 그 두 세계의 신관, 인간관, 진리관, 지식관, 그리고 윤리관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요약한 바와 같다.

Table 1. Differences in the Worldview between the Christian Theism and Postmodern Secular Humanism (Arranged from Vaucham Jr. 52-54)

세계관	기독교 유신론 (Christian Theism)	포스트모던 휴머니즘 (Postmodern Secular Humanism)
하나님	필수불가결, 전지전능한 존재	근본적인 무신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창 1: 26-28; 9:6)	단세포에서 출발한 유기체, 털 없는 유인원, 아무런 이유나 까닭이 없는 우연의 존재(a cosmic accident with no real rhyme or reason)
진실	진리는 절대적이다.	철학적 다원주의와 경험주의를 선호함.
지식	하나님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리라면 모든 장소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	물질을 선호하여 추상적 진리를 거부(고전적 휴머니즘) 경험을 선호하며 초월적 진리 거부(포스트모더니즘)
윤리	인간의 도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옳고 그름의 문제인 윤리를 절대적으로 봄.	모든 윤리는 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상대적이고 협상 가능한 가치 체계로 봄.

다음으로 보웬은 인생의 네 가지의 궁극적인 질문들, 즉 1) 나는 누구인가? 2)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3) 세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4)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그 질문들이 위의 두 집단의 삶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리한 후, 골로새서 1장 12절-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파한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돈함에 있어서, 불완전한 ‘포스트모던 휴머니즘’의 답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완전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 유신론’을 그 다음 순서로 배치한다.

Table 2. Differences in the Fundamental View of Life between the Christian Theism and Postmodern Secular Humanism (Arranged from Vaucham Jr. 54-66)

질문들	포스트모던 휴머니즘(Postmodern Secular Humanism) (Vaucham 54-57)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 (Vaucham 57-66)
나는 누구인가?	우연의 결과, 실수, 미화된 유인원, 임의의 진화 과정의 결과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골 1:15-16)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 (시 8:5)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만드심(시 139:13) -고유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

<p>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p>	<p>소비하고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왔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향유해야 한다.</p> <p>*록펠러가 받은 질문: “얼마면 되겠어?” 록펠러의 대답: “조금만 더...” ** 결과: 물질주의 우주에 쾌락과 소비를 결합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 ‘너’를 착취한다.</p> <p>-나치의 인종 말살 -현대인의 낙태와 유산 등</p>	<p>골 1:16b-18 만물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이유는 소비와 즐거움을 훨씬 능가한다.</p>
<p>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p>	<p>사람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관리와 통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p>	<p>골 1:19-21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를 원한다.</p>
<p>잘못된 것을 수정할 방법은 무엇인가?</p>	<p>더 많은 정보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거나, 더 강력한 관리와 통제를 해야 한다.</p> <p>*결과: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른 인간을 데려다가 교육 시키면 파괴의 능력이 더 정교해질 뿐이다. 또한 통제권자들의 부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p>	<p>골 1:22 그러나.../ 23 만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만일 우리가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우선 순위와 주권과 탁월성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음(행 4:12)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으로 구원 완성(벧전 3:18)</p>

이상과 같은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보충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전자[포스트모던 세속적 인본주의]와 함께라면, 그대는 공허하고 절망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대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기독교 유신론]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소중하고, 목적이 있고,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이 진실로 포스트모던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67)

요컨대, 오늘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책임하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위 ‘실존주의적 세계관’은 이미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직접적인 관계성이나 그 관계의 필요성은 부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인간 중심의 철학과 문학과 문화가 구성해 가는 세계관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땅 위에 견고히 그 터를 닦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스트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학자들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고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반한 더 치밀하고 더 구체적인 연구들을 통해 각종 문화와 문학 및 예술의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재강화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소설 속의 포스트 시대와 교회

1. 지넷 윈터슨: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포스트모던 작가

1959년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태어난 지넷 윈터슨은 오순절 복음주의 교회(the Pentecostal Evangelical church)의 성도였던 콘스탄스(Constance)와 존 윈터슨(John Winterson)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녀를 선교사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양부모의 계획을 따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오순절 교회에 다녔고 8살 때 첫 설교문을 쓰고, 직접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15세가 되던 해에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파문을 겪게 된다.

그 사건 이후 집을 떠나게 된 윈터슨은 애크링턴 평생교육원(Accrington Further Education College)을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장례식장과 정신병원 등에서 일하면서, 영국의 대입시험인 A 레벨 시험(A Levels)을 치른 후, 옥스퍼드 대학의 세인트 캐서린 칼리지(St. Catherin's College)에 진학했다. 1981년에 영문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녀는 런던으로 이주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5년에 판도라 출판사(Pandora Press)에서 첫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출판했다. 현재 이 작품은 “윈터슨의 소설 중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the most popular and most written-on of Winterson's novels) 작품”(Makinen 1)으로 인정되고 있다. 윈터슨은 엘리너 와크텔(Elener Wachtel)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언어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재능과 감각이 성경에서 비롯되었음을 피력한다.

저는 성경 안에서 길러졌습니다. 전 감히 누구보다도, 대부분의 현대인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말하는 방식, 우화와 이야기, 소설이 모두 담겨 있고, 무척 강렬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다가갑니다. 저에게 언어는 자유입니다.(250-251)

성장기 어린 시절에 그녀가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책과 토머스 말로리 경(Sir Thomas Malory)의 『아서왕의 죽음』(*Le Morte d'Arthur*),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 그리고 성경 해설집 등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권에 불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 외에 그녀의 글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아서왕의 죽음』이었다고 한다.(배만호 87) 그녀는 첫 소설을 출간한 그 이듬해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하여 성경을 상호텍스트적으로 다시 쓴 코믹 소설인 『초보자를 위한 배타기』(*Boating for Beginners*)를 출간했고, 1987년에 『열정』(*The Passion*)을 출간하여 존 류엘린 리스 문학상(John Llewellyn Rhys Literary Prize)을 수상하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성경 뿐 아니라 물리학과 의학, 더 나아가서 컴퓨터 기술과 가상 공간과 관련된 내용까지 작품 속에서 상호텍스트적 실험에 사용해 오면서, “소설의 유형과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실험하는 작가”(와크텔 254)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는 윈터슨은 가톨릭의 사제직을 거부하고 “영원한 상상력의 사제(a priest of eternal imagination)”(Joyce 221)의 길을 갈 것을 결심했던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주인공인 스티븐 디달러스(Stephen Dedalus)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기억을 거부하고 종교를 초월한 예술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나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은 물론 아주 유용한 훈련이었습니다. 설득의 기술, 구식 수사학이죠. 저는 언어를, 말과 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웠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사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사의 정체죠. 성공한 전도사란 청중에게 그들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가들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정말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만 예술가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 자체를 위해서, 예술 자체로 그렇게 합니다.(와크텔 250)

선교사가 되기 위한 양육과정을 거쳤던 어린 시절의 철저했던 종교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에 대한 반발과 모든 제약과 구분을 거부하며 초월하는 그녀의 자유로운 성격으로 말미암아 윈터슨의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의 대표적인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게 되었고, 20세기 후반의 영국 문학을 다루는 비평서들은 변함없이 그녀에 대한 다각적

인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윈터슨의 소설을 수식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레즈비언’과 ‘포스트모던’이다. 윈터슨 자신은 1991년에 쓴 이 작품의 저작 과정과 그 의미와 특징을 기록한 서문(“Introduction”)에서 이 소설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이 작품은 “나선형 서술 구조(a spiral narrative)”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것으로 위장한 복잡한 서술 구조를 제공하며,” 둘째로 가족과 교회 생활의 신성함의 이면을 드러낸 “위협적인 소설”이며, 셋째로는 “위안이 되는 소설”인데,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자전적 소설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¹

레즈비언 텍스트로서 그녀의 소설들에 대한 비평적 반응 역시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메르자 매किन(Merja Makinen)은 『지넷 윈터슨의 소설들』(*The Novels of Jeanette Winterson*)이라는 저서에서 윈터슨의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범위는 우선 그녀의 작품들이 성 정체성의 문제를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해체하고 젠더 수행의 유동성을 가시화했다거나, 이성애자 세계 내에서 레즈비언 여성들에게 가해진 억압과 피해를 밝혀냄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 또는 레즈비어니즘의 보편화 또는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지난 30년 동안 레즈비언 문학 비평이 변화한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 (2-3)

매किन은 계속해서 그녀의 작품들의 인물이나 구성 및 주제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모더니스트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윈터슨이 “사실과 허구, 실재와 환상,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구분을 해체하고 성경에서 동화에 이르는 상호텍스트적인 레퍼런스를 다시 쓰는 식의 메타-내러티브와 자기 반영적 텍스트의 특성 등을 작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비평가들이 그녀를 포스트모던 작가로 보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문화의 정통성과 그 역사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관련된 사조이며,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철학자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일단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이나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원리들에 대한 의심 등을 포스트모던의 조건으로 정의한 바 있다.(xxiv) 덧붙여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적 상대주의와 유동적인 정체성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는데, 유동적이고 임의적인 정체성의 개념은 소위 젠더의 본질을 구성된 것으로 보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Low 27)

윈터슨의 소설의 근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다양한 문학적 실험정신, 개인의 내면 의식과 그 흐름에 대한 천착, 그리고 소위 성이나 젠더와 같은 ‘생물학적 욕망’과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 등의

1) Jeanette Winterson,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London: Vintage, 1990), pp. xi-xv 참조. 이후 텍스트 인용은 본서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O 라고 표기하고 면 수를 기록한다. 번역문은 지넷 윈터슨/ 김은정 옮김(2009),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서울: 민음사)를 참조함.

구성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모더니즘의 실험을 다시 시작”(와크텔 255)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자유를 강조하는 레즈비언 작가로 볼 수도 있고, 또 “역사와 문화와 성별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Pearce 148)을 추구한 인본주의 작가로 볼 수도 있다. 요컨대 그녀는 사실상 자신의 내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구분과 구별과 차별을 초월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설 속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교회

(1) 거대 담론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도전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아낌없는 찬사 속에 “비평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Low 86) 윈터슨의 첫 소설『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는 현재 “중등학교의 교과 과정에 편성”(Makinen 5) 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애초 이 작품은 1980년대 중반에 정치적 우파들이 1960년대의 좌익 급진파와 성적 혁명에 대하여 현대 사회의 병증, 즉 가족 가치의 파괴와 전통적 도덕 규범의 파괴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시대에 쓰여져, 공개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일련의 관련된 담론에 대한 인습타파적 도전을 감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Bently 109).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작품은 소위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질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윈터슨이 소설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패러디를 통한 조롱과 전복을 시도한 대상은 서구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가정제도, 그리고 이성애 중심의 젠더 구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패러디적 등가물이 지넷의 성장의 단계들과 성경적 설명 사이에 세워진다(Onega 21). 즉 이 소설을 구성하는 여덟 개의 챕터들은 구약성경의 첫 여덟 권인 「창세기」(Genesis), 「출애굽기」(Exodus), 「레위기」(Leviticus), 「민수기」(Numbers), 「신명기」(Deuteronomy), 「여호수아」(Joshua), 「사사기」(Judges), 그리고 「룻기」(Ruth)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상 만물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의 여정을 다룬 성경 각 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섭리 대신 주인공 지넷의 삶의 여정에 맞추어 기록된다.

예컨대, 「창세기」는 지넷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그녀를 입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O 10), 윈터슨의 「창세기」에서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며, “철저하게 구약성서적”(O 4)이었던 그 어머니는 스스로 신약성경의 ‘동방 박사’가 되어 자신만의 동정녀 출산으로 마리아를 패러디하고 있다. 「창세기」의 말미에서 “사육장(Breeding Ground)”(O 17)이라고 불리는 학교의 취학통지서를 받게 된 어머니는 지넷에게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네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야

하니까”(O 21)라고 알려준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해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 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Canaan)으로 가는 40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는 이 작품에서 지넷이 집이라는 환경을 떠나 학교로 가는 여정 속에서 교회와 병원 등 여러 사회적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면서 성경 속의 내용들을 왜곡시키고 전복하고 있다. 예컨대 「신명기」를 읽은 소감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할례의식을 오해하고 있는 듯한 어린 지넷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신명기」에는 결점이 있었다. 이 복음서에는 혐오스러운 것과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사생아나 고환이 망가진 사람에 대해 읽게 될 때마다 어머니는 페이지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주님께 맡기자꾸나.”

그러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면 나는 그 부분을 몰래 훑쳐보곤 했다. 내게 고환이 없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고환은 몸 바깥에 붙었을 뿐 창자와 다른없는 듯했고 성서 속의 남자들은 항상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 없었다. 끔찍해라. (O 41)

그런가 하면,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의 어둡고 추운 밤길을 밝혀주던 불기둥과 대낮의 무더위로부터 지켜주던 구름 기둥 이야기를 하면서 “구름 기둥은 안개다. 혼란케 하고 견디기 어려운 안개. 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O 47)라고 표현함으로써 성경 내용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제사의 방식을 다룬 성경의 「레위기」는 “흠이 없는”(O 58) 완전을 설파하는 목사님의 설교 장면에 균형과 조화에 관한 동화를 삽입하여, 자신이 해석한 완전성으로서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며,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두 차례에 걸친 인구 조사 뿐 아니라,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광야의 불뱀과 뱀 사건 등을 통해 유대 민족의 불순종과 불평, 징벌과 회개,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민수기」는 결혼이 불가능한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는 꿈 이야기로 변용된다.

여하튼 나는 제단까지 갔다. 신부는 상당히 뚱뚱한 데다 풍선껌처럼 계속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에 이르렀다.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신랑이 나에게로 몸을 돌린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때로 신랑은 장님이었고, 때로는 돼지였으며, 때로는 어머니였다. 어느 때는 우체국 아저씨였던 적도 있고 한번은, 안에 아무도 들어 있지 않은 그냥 옷 한 벌인 적도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꿈 얘기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저녁때 정어리를 먹어서

그런거라고 했다.(O 69)

더 나아가「민수기」에는 주인공 지넷의 성 정체성에 대한 반응이 구체화 된다. 찢어진 우비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사준 분홍색 우비(Mackintosh)를 매우 못마땅해 하는데, 이것은 크기와 색깔이 맞지 않는 옷을 입힘으로써, 어머니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강제로 재단하려는 시도”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성(feminity)”과 “소녀다움(girliness)”을 의미하는 분홍빛에 대한 지넷의 거부 반응일 수 있다.(배만호 90) 타고난 성별에 대한 주인공 지넷의 거부감은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만난 “옆집 고양이처럼 사랑스러운 회색”(O 78) 눈동자를 가진 멜라니(Melanie)에 대한 연정과 그녀와의 성적 체험으로 연결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선교사를 꿈꾸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이 성경공부와 더불어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대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게 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다고 서로에게 말했다. 멜라니가 한참 동안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러다 우리는 포옹했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나는 덜컥 놀랐으나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배 안에서 뭔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내 안에 문어가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다시 아침이 밝았다.(O 86)

지넷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구체화된「민수기」장은 종교적 규율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부지불식간의 위반에서 오는 두려움이 기성 사회의 고정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반동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발전할 것을 암시하는 그녀의 의식의 흐름과 관련된 서술로 마무리된다.

나이 들고, 죽고, 다시 시작하고, 부지불식간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바깥에서는, 반역자들이 이 겨울 궁전으로 밀어닥치고 있다.(O 87)

이처럼 엄청난 국면의 전환을 예측하게 하는 「민수기」의 뒤를 이어, 모세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가 “역사 혹은 중심을 해체하려는 작가의 의도”(배만호 90)가 다분히 응결된 짧지만 강력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윈스턴 자신의 메시지로 가득 찬 또 다른 「신명

기」로 치환된다.

똑같은 이야기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다르게 본다는 것을 상기시킬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들을 믿지 않는다. 확실한 단 한 가지는, 매듭으로 가득한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모두 거기에 있으나 시작 부분을 찾기가 힘들고 끝을 가능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실뜨기에 감탄하는 것, 어쩌면 매듭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일 것이다. 역사는 흔들기 위한 해먹이고 놀기 위한 게임인 것이다. 고양이들이 노는 것처럼 실타래를 발로 잡고, 물고, 다시 풀고, 잠들 때, 실은 여전히 매듭으로 가득한 타래다. 아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런 역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다. 출판사들이 곧잘 그랬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총명하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역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은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비 오는 날의 오락 거리다. (O 91)

결국 다섯 번째 장인 「신명기」는 “한결같은 기적을 믿느니 내가 직접 만든 겨자소스를 샌드위치에 뿌려 먹을 것”(O 93)이라고 스스로 결심하며, 독자들에게도 “당신의 치아를 보존하고 싶다면,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도록”(O 93) 권고하는 작가의 목소리로 마무리된다. 특히 이 장의 제목에는 “율법서의 마지막 권(the last book of the law)”(O 89)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이후 주인공 지넷의 삶의 양상이 좀 더 개인적이고 탈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세오경(The Pentateuch)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따라야 할 율법 제정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윈터슨 소설의 첫 다섯 장은 지넷이 마침내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주류 문화권과 지극히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정립해 가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모든 포스트주의의 문화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토대로 기획되고 저술된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는 총 66권의 친구약 성경 중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형태로 서술되고 전달되고 교육되는, 외견상 단성적이고 권위적인 구약성경, 그것도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진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진 처음 다섯 권과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두 권,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가장 파격적인 혼종성을 주제로 다루는 「룻기」까지를 그 서술의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 국가와 역사 그리고 종교와 율법의 권위 노골적으로 전복하고 혼종성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2) 본능을 향한 여정

유대인들의 가난한 정착기를 다룬 「여호수아」는 지넷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동성에 성향이 밝혀진 뒤에 교회의 담임 목사와 어머니로부터 ‘구마의식’(exorcism) 등을 비롯한 엄청난 갈등을 겪고 결국 교

회와 가정을 떠나는 이야기로 각색된다. 이 장에서 지넷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던 어머니라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답장은 보호하고 동시에 제한한다. 무너지는 것도 답장의 본질인 것이다. 답장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트럼펫을 불 줄 알게 된 결과다”(O 110)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유대인들의 승리를 이성애 중심의 억압적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자신이 독립을 쟁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로 끝나는 「사사기/판관기」의 이야기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와 어머니에 대한 지넷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결국 둘 사이의 화해가 무위로 돌아가며, 지넷은 교회와 가정을 떠난다.

처음에는, 나에게도 단지 우발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되었다. 그 퇴마 의식 이후 나는 나의 세상을 그와 아주 유사한 다른 세상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신을 사랑했고 교회 또한 사랑했지만, 난 이를 더욱 더 복잡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O 126)

「민수기」에서 멜라니와 가졌던 첫 동성애의 경험 이후, 지넷이 그들의 이러한 욕망이 “그릇된 정욕”인지를 묻자 멜라니는 자신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목사님이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그건 끔찍한 것이라고 대답하고 지넷 자신 역시 멜라니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O 86)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창 5:2)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안에서 솟아난 본능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수아」에서 어머니와 교회 앞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고 난 뒤, 교회를 뛰쳐나온 지넷은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또 한 사람의 숨은 레즈비언인 주스버리(Jewsbury) 양을 만나 다시 한번 갑작스런 성적 접촉을 경험하게 된다. 충격을 받은 지넷을 위로하느라 다독이던 그녀의 손길이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 후 지넷은 자신들의 행위를 증오하게 된다.

주스버리 양은 내 머리와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등을 더 잘 두드릴 수 있도록 나는 옆드렸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녀가 갑자기 내 위로 옆드렸다. 내 목에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불쑥 나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키스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고 나는 그것을 증오하고 또 증오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O 104)

이처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는 감정의 결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O 126)들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에게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감정과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이 생각과 경험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관계로서의 참된 사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상적인 의지의 흐름에 복종하게 되는 ‘감각적인 사랑’이고, ‘본능에 따른 사랑’이며, 더 나아가서 무분별한 감정의 남발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금지하고 경고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결국 회개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한 지넷에게 어머니는 “네가 가야겠다. 난 내 집안에 마귀를 들일 수 없어.”(O 133)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을 떠나는 지넷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아침이었다”(O 134)고 소회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을 암시한다.

볼링거(Laurel Bollinger)는 윈터슨이 지넷의 이야기에 성서 텍스트를 혼합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과 성서 텍스트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과 허구 사이의 구별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65). 그 결과로 그녀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위상을 끌어내려 전설이나 동화 등과 같은 세속의 허구적 이야기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그녀는 자신의 소설의 마지막을 「룻기」로 장식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여자이자 가난한 과부, 그리고 주류 세력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이라는 세 겹의 주변화”(Omega 21-22)를 신의로 견디며 시어머니를 섬기며 순종하다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룻의 이야기가 천애 고아 입양아에 레즈비언이라는 주변인 신분의 소녀 지넷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저녁에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로 변형된다.

윈터슨은 소설의 마지막 장인 「룻기」의 초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화시키고 싶은 물질을 이해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물론 사람들은 잘라내고 수정하지만, 그것은 타락한 힘이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악의 본질이다.(O 138)

이것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했던 당시 자신의 어머니와 교회가 보여준 지극히 배타적인 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자, 또한 오늘을 사는 독자들에게 경고, 또는 권고하는 자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다수자와 소수자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과 같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전제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지넷은 학교를 졸업하고 정신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식 이후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아 어머니에게로 돌아온다. 엄청난 눈과 추위 속으로 돌아온 지넷은 마치 성경 속의 ‘돌아온 탕자’(눅 15:11-32)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녀는 “장갑을 가져오지 않은 데다 내 좌석 위의 짐 신는 선반은 망가져 있”고 게다가 지나가던 검표원은 “통로에 짐 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O 157)

이 장면은 교회에서의 커밍아웃 이후, 큰 소동을 겪은 뒤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O 162)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 지넷의 지극히 정상적인 홈커밍(homecoming)의 순간에 대한 묘사이지만, 집과 어머니를 만나기 직전 그녀의 모습은 공교롭게도 장갑이 없어 추위 속에 짐을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짐칸이 부서졌는데도, 통로에 마저 짐을 놓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하고 있는 딜레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즉 연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전환점에서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인 윈터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남성성, 남성에게만 세력을 허용하고,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하며, 교리에 어긋나는 그 어떤 의견이나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철저히 등을 돌리는 기독교, 남성 중심 문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거대담론’으로서의 역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그 모든 상황과 정반대의 배경 속에서 성장해 온 작가 자신의 삶의 궤적을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에 엮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고, 전복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장에서 지넷이 커밍아웃(coming out)을 하고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로부터 “사탄의 주문에 걸렸”(O 102)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은 이후 끝까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수했던 지넷과는 달리 그녀의 연인이었던 멜라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곧바로 회개하고, 그녀와의 생활을 정리하게 되며,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건 이후 그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레즈비언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주스버리 양, 케이트, 아이스크림 가게 여인들 등), 심지어 지넷의 어머니 본인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앨범 중에 “옛 애인들(Old Flames)”(O 35)이라고 기록된 섹션에서 과거에 자신이 좋아했거나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딸과 함께 보던 어머니가 에디라는 남성의 여동생의 사진을 발견하고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나는 궁금했다. 순한 아버지가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 같았던 모습을 애써 상상해 보았다.

“아빠는 나랑 결혼하고 주님을 만났거든.”

그러고서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쉬고 옛 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픈카를 몰고 다녔던 미 치광이 퍼시는 어머니에게 브라이언에서 함께 살자고 한 사람이었다. 거북 껍질 안경을 쓴 양봉업자 에디는... 이때 그 페이지 맨 밑에 고양이를 안고 있는 한 예쁜 여자의 바랜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가리켰다.

“이 사람? 아, 그냥 에디의 여동생이야. 내가 왜 이 사진을 여기에 뒀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에 사진첩을 다시 펼쳐 봤을 때 그 사진은 없었다.(O 36)

여기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하여 닉 벤틀리(Nick Bentley)는 지넷의 어머니가 이 여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억압해왔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10) 또한 지넷의 커밍아웃으로 교회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을 때, 혼자 남은 그녀에게 다가온 주스버리 양이 던진 의미심장한 말 속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엄마는 세속적인 여자야. 너는 절대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만, 네 엄마는 감정, 특히 여자들의 감정을 잘 알아.”(O 104) 윈터슨이 그녀의 작품을 “위협적인 소설”(xiii)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작가인 윈터슨은 자신과 동명인 주인공의 커밍아웃의 경험을 통해 소위 레즈비언의 성적 지향성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본능 속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마 7: 3) 현대 교회의 위선을 폭로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핀(Gabrielle Griffin)은 작품 속 주인공인 지넷이 레즈비언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 하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남성이 전혀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지넷이 레즈비언의 성향으로 발전했다는 “사회구성주의적 견해(social constructionist views)”와 지넷 자신이 결코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본질주의적 견해(essentialist views)가 그것이다.(96-7)

실제로 주인공 지넷이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뭐든 잘하는 것이 없”는 무능한 아버지(O 10)와 어린 주일 학생의 상상력을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권위로 억압하는 교회 목사(O 12-3), 그리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어린 지넷을 힘들게 했던 우체국 아저씨(O 70) 등 온통 부정적인 남성관이 팽배하고, 주요한 생활 공간 중 하나인 교회에서는 강한 성격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종의 모계사회를 방불케 하는 성장환경이었다. 덧붙여서 그 커뮤니티는 양성 간의 균형 잡힌 사랑에 대하여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은”(O 71) 왜곡된 교육 환경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인공 지넷의 성장환경은 주변을 통한

그녀의 성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지넷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여성성의 지배적인 규범을 거부해 왔다. 예컨대, 자신을 귀여운 “아가(poppet)”(O 70)라고 부르던 우체국 아저씨가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하트 모양 사탕을”(O 70)이라고 인사하며 사탕을 주자 그녀는 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날 나는 신경질이 나서 내 강아지를 질식사시킬 뻔 했고, 당황한 어머니가 나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사랑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러나 나는 어린 소녀이고, 그러므로 나는 사랑스러웠으며, 여기 그걸 입증하는 사탕이 있었다.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란색과 분홍색과 하늘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전부 하트 모양인 데다 죄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다.

켄을 위해 모린이

책과 질, 변함 없이. (O 70)

요컨대 그녀의 환경 속에 이미 부재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만연해 있는 남성의 이미지와 이 문단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성애 사회에서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주인공 지넷의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사회 구성적’ 혹은 ‘본질적(선천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여기까지가 작품 속에서 현대의 기독교 또는 교회가 만나고 있는 포스트모던의 세계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보웬의 주장대로 “동성에 결혼이 일어나고 있고, 부분 출산 낙태가 흔해졌으며, 정치 후보들은 그들의 조력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의 종교적 소속감의 강도를 정기적으로 낮추고 있다.”(51)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는 성도는 소설 속 지넷의 어머니처럼 ‘근본주의자’나 ‘광신도’로 매도되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기교의 치밀함과 문체의 유연함과 대담함, 그리고 그 주제의 당돌함으로 인하여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같은 소설이나 영화 등과 같은 각종 문학과 문화 및 예술의 작품들은 다양한 기법과 장치를 이용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전복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질서와 권위 속에서 억압받고 무시되던 세력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모든 강자들은 그동안 약자들에게 취해 온 억압의 태도를 반성하고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현대 사회는 정반대로 역할별의 결과가 예측될 가능성이 다분한 각종 규칙과 법령들을 예고하며 그러한 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다각적으로 도출해 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대의 교회가 직면해야 할 딜레마이다.

(3) 변화를 견디는 힘: 교회 같은 어머니, 어머니 같은 교회

이 책의 마지막 장인 「룻기」의 중반부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열 블록, 가로등 스무개”(O 158)를 지나 자신이 떠나왔던 집을 다시 찾아간 지넷은 재회한 어머니를 통해 ‘변화’와 ‘불변’을 동시에 경험한다. 우선 집의 위치와 어머니의 존재는 변함이 없었다. 사람은 배신하고 조직은 무너졌지만, 어머니의 기다림과 그녀의 봉사와 선교 활동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견재하였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유연함이었다.

응접실에는 좋게 말하면 기발한 장치라고 해 줄 만한 것이 있고 그 앞에 어머니가 앉아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가 그걸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가방을 내려놓고 나는 기다렸다. 어머니는 회전 의자에 앉은 채 방향을 돌렸다. 악보 한 장을 흔들면서. 악보 겉장에 “기쁜 소식들”이라고 쓰여 있다.

“와서 이것 좀 봐라, 전자오르간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회전해서 자리로 돌아가 건반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피아노는 어떻게 하고요?”

“아. 요즘은 모두 전자 쪽으로 바꾸는 추세다. 난 시류를 따르는 것이 좋아.”(O 159)

어머니는 지넷의 커밍아웃 사건 초기에 딸의 성적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가끔씩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결국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니까”(O 167)라고 말하면서 열린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탄절 기간에 보여진 이와 같은 어머니의 변화는 엄격한 규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훈육과 처벌을 역설하는 ‘구약의 논리’에서 사랑과 관용을 더 중시하는 ‘신약의 논리’로의 전이로 해석되기도 한다. (Bently 113)

사실 작가 윈터슨의 어머니를 연상하게 하는 주인공 지넷의 어머니는 예배와 봉사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충실한 성도였다. 물론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신앙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녀는 “위풍당당한 마호가니로 만든 라디오 겸용 전축”(O 4)으로 설교 말씀이나 선교 소식을 즐겨 듣고 참여하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사육장”(O 16)이라고 주장하는 그녀는 딸이 취학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신앙관에 기반하여 집에서 지넷을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집안에서의 영향력이나 생활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화장실을 만들고(O 16), 라디오 통신을 통한 선교 활동에 몰두하고, 딸의 일반적인 분야의 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한편 내 공부는 계속됐다. 원예학, 민달팽이로 인한 정원의 해충 문제, 그리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씨앗 목록에 대해 배웠고, 역사가 게시록에 나오는 예언대로 흐른다는 것과 어머니가 주마다 받아보는《명백한 진리》라는 잡지의 내용을 이해해 갔다.

“우리 시대에 다시 엘리야가 나올 거다.”

어머니가 선언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징표와 기적들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네가 나중에 선교하러 나가게 될 때 필요할 거다.”

어머니가 나를 일깨웠다. (O 15-6)

근본주의 신앙관을 연상하게 하는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사실 딸을 선교사로 키우고자 했던 그녀의 신앙적 소망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교육 방식을 상징하는 ‘객관 상관물’로 사용된 도구가 바로 ‘오렌지’이며, 이 작품의 제목도 그와 관련이 있다. 「출애굽기」장에서 지넷이 귀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잠자리로 돌아와”(O 24)야 했을 때 처음 등장한 오렌지는 신앙생활로 바뀐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녀의 곁을 지켜준 위안의 존재였고, 어머니에게는 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입에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내주던 세상에서 “유일한 과일”(O 29)이었다.

빅토리아 병원은 크고 무서웠다. 게다가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라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다. 치과 공지사향과 엑스레이 기계 사용자 외에는 읽을 것이라곤 없었다. 오렌지 껍질로 이글루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계속해서 무너졌고, 간신히 세운 뒤에는 안에 넣을 에스키모가 없는 탓에 ‘에스키모는 어떻게 잡아먹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했고, 그래서 내 기분은 더욱 더 비참해졌다. 기분 전환거리란 늘 이렇다. 결국엔 진지해져서는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들어 버린다. (O 27)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넷에게 오렌지는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을 위로할 유일한 무기인 상상력”(Omega 20)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녀의 환상 속에 “오렌지 악마(the orange demon)”(O 106)로 등장하여 그녀를 유혹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의 말미에서, 오렌지만이 유일한 과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 그 위상이 변화되는 오렌지는 레즈비언 소설가로서 윈터슨이 제거하고 파괴해야 할 “이분법”이며, 포스트모던 레즈비언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최초의 “시험적 장치”로 해석되기도 한다(Doan 147-48).

이처럼 주인공 지넷의 어머니는 어린 딸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했으나, 교회가 자신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느라 딸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는 남편이나 다른 친지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모집한 물품이 필요 이상으로 모였을 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O 105) 주거나 “성탄극 각본”(O 117)을 직접 쓰는 등, 교회 안팎의 봉사활동과 선교 및 교육의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또한 열정적으로 수행해 온 성도였다.

그러나 딸이 비성경적인 연애 행위에 대한 고백을 들은 후에는 교회를 통해 치리를 결정하고(O 102), 집안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끄덕이고, 끄덕이고,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가두었다. 어머니는 내게 담요 한 장만 던져주고 전구마저 가져가 버렸다. 그다음 서른 여섯 시간 동안 나는 악마와 다른 것들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나는 악마가 약점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악마가 들렀다면 나의 약점은 멜라니다. 그러나 멜라니는 아름답고 착하고 나를 사랑했다.

진정 사랑이 악마라는 말인가?

어떤 종류의 악마지? 귀에다 덜거덕 소리를 내는 갈색 악마? 나무 피리에 맞추어 춤추는 붉은 악마? 병을 일으키는 물의 악마? 변장을 하는 오렌지 악마? 고양이에게 베풀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악마가 있다.
(O 105-6)

어머니는 가정과 교회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딸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녀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와 교단의 “심의회”(O 130)의 결정, 즉 말씀 선포의 권한을 남성도에게 제한하는 등, 여성도의 교회 내에서의 위상 축소 결정에 순종하고, 또한 지넷의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그녀의 선교사 지명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사실상 교회 내에서 여성도들의 위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녀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지넷은 “목사들에게 엄마는 너무 약했다”거나, 심지어 “만약 영적 간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는 창녀였다”(O 131)라고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결정을 비난하게 된다.

담임 목사는 지넷의 회개를 위한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참가할 것을 설득하고, 어머니 역시 끝까지 딸의 회개를 위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넷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지넷은 “어머니 혼자 가세요. 전 교회를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잊어버리세요”(O 133)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심을 굳히고, 마침내는 회개할 것인가를 묻는 담임 목사의 질문에 “아니요”(O 133)라고 답한다. 끝내 회개를 거부하는 자신의 딸에게 집을 나가도록 명령한 어머니는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는 딸에게 “악마도 자기 자식들은 돌본다”(O 134)라고 단호하게 되받아친다.

결국 지넷의 어머니는 포스트모던적 주체인 작가의 글과 작품 속 자신의 딸의 말을 통해, 종교활동

에 심취하여 자신의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 딸을 집 밖의 낯설고 두려운 환경으로 내쫓는 사악한 ‘광신자’로 묘사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그 어머니는 천에 고아인 주인공을 입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딸로 키웠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 밖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와 봉사 및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온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교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하여 회개를 거부하는 딸을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도해 온 ‘흔들림 없는 교회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유족 회관이 해산되었고, 모레캄베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부패 사건이 있었으며, 본 목사님은 파산했다고 했다. 어부들을 선교하기 위해 따로 모아 두었던 성금 대부분이 목사의 노름빚으로 쓰인 듯했다. 어머니가 걷어 들인 회비와 종교 장식품 매출에서 생긴 이익은 목사의 아내가 생활비로 썼다. 그와 사이가 나빴던 아내가 말이다. 목사님과 함께 살던 여자는 부인이 아니라 애인이었다. (O 159)

성탄절 휴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온 지넷을 맞아들이는 어머니의 상황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봉사와 선교를 위한 사역의 내용이나 역할 또는 그 열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충성해 온 어머니는 ‘광신자’이거나 ‘원리주의자’ 또는 ‘근본주의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신뢰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진정한 믿음의 결실은 어찌 보면 바로 지넷의 어머니와 같은 열정적인 성도들에 의해서 거두어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모레캄베 게스트 하우스에서 또다시 사고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부랴부랴 현장으로 떠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넷의 의식은 충격을 받았을 어머니에 대한 상상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채워진다.

어머니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라. 유족 회관은 씩씩한 타격을 입었고, 모레캄베 게스트 하우스는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는야말로 결정타였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족들, 진짜 가족들은 의자와 탁자, 그리고 딱 맞는 수의 컵이다. 그런데 내게는 가족이 될 방법도 내 가족을 버릴 방법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 단추에 실을 묶어 놓았고 원할 때 잡아당긴다. 나는 다른 곳에 있는 한 여자를 안다. 아마도 그녀가 나를 구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잠들어 있다면 어찌지? 그녀가 몽유병에 걸려 내 옆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전혀 모른다면? (O 171)

그러나 사실상 지넷이 불안한 마음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단추에 묶어 놓은 실은 그녀가 동화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자신을 옹아매기 위한 기성세대의 계략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쉽게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지넷이 또다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을 예측하면서 탈출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을 때, 교회를 닮은 어머니는 “큰바람을 일으키며 성큼성큼 들어와”(O 171) “맨체스터에게 전하는 성령의 빛”(O 171) 방송을 시작한다. 그 사이에 주인공 지넷은 비록 “남자를 위해서는” “전부를 주는 사랑”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 그림다.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림다”(O 165)라고 독백함으로써, 영육 간 변화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고 있다.

IV. 나가는 말

이 작품에 대한 거의 모든 비평과 분석은 특정 종교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자신의 성적 지향을 전투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진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우수한 문학적 성과 거침없는 개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어머니의 영향력과 교회 성도들의 집요한 관심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출을 하지만 결국 “친구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지넷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가인 윈터슨이 이 작품을 통해 추구했던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체성을 뒤흔들며, 결국 신앙마저 버리게 만드는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는”(O 138) 어머니의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작가인 윈터슨은 이와 같은 어머니의 변화를 기반으로 현대의 독자들이나 교회를 설득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어머니처럼 엄격한 원리주의 기독교인도 마침내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니까”(O 167)라고 되뇌면서 자신의 레즈비언 성향을 인정해 주었으니, 교회와 세상도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가 포스트모던적 비평인 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반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이 작품 전반을 재검토해 본 결과,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항변해 온 한 포스트모던 소설가의 작품 속에서, 그들과 역사적 시대와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와 역할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첫 번째 태도 혹은 역할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반하여 역사의 흐

름을 잃어내며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일 것이다. 소위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과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으로 시작된 문예사조의 흐름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심과 규범을 중시했던 고전주의의 사조와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했던 낭만주의의 사조 사이의 끊임없는 변증법의 흐름을 통해 변화와 진보를 거듭해 왔다. 예컨대 중세의 기독교 중심의 문화가 페스트를 겪은 후에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를 형성시켰고, 그것은 다시 16-7세기의 신고전주의라는 규범과 형식 중심의 사조로 변천했으며, 그에 대한 반동으로 18세기의 낭만주의가 발흥하게 되었다. 낭만주의의 넘치는 감성과 상상력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거쳐 1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즘이라는 형식 중심의 새로운 사조로 발전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의 식민지들이 해방되면서 억눌린 세력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소위 ‘포스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때 복음 전파에 기반한 봉사와 교육을 통해 어두운 오지에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문화와 문명의 선구자였고, 마을마다 우뚝 솟은 십자가 탑을 통해 그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좋은 소식과 축복과 교제의 마당이었던 교회는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교회의 보수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적 사조의 자연스러운 변천의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이 와해되고, 권위가 부정되며, 개인의 자유가, 그중에서도 특히 억눌렸던 개인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대가 되어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사조와 두려움 없이 직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사조의 피라미드 위에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교회가 오늘날 이 모든 급격하고도 치명적인 사회적 변화를 대하는 자세는, 베이스가 경고한 것처럼 세상 사조에 휩쓸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조에 맞추어 변형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의 비성경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적대시하거나 반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포스트주의의 다양한 전략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철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들을 아우르며 초월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적, 영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오늘날의 교회는 ‘말’이 아닌 ‘행위’를 통한 지속적인 섬김의 자세로 세상과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이 와해되고, 억눌려왔던 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허용되고 있는 ‘포스트’ 시대에 교회는 그 말들에 대하여 같은 말로 대항하며 뒤섞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 20)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웃 사랑을 행위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대를 대하는 교회는 칼빈(John Calvin)의 주장대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

장할 때까지 양육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우리의 어머니”(843) 같은 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촉구하셨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스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 24:18)를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바탕을 둔 유연함을 극대화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행 1:8)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위상을 견지하는 ‘교회같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태도와 위상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포스트모던의 중심을 앞장서서 살아가는 딸을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인 ‘예배’와 ‘구제’와 ‘봉사,’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온몸을 던져 성실히 감당하는 이 소설 속의 ‘교회 같은 어머니’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aucham, Voddie Jr.(2007). Truth and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in Piper, John and Justin Taylor(Eds.)(2007)*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51-68.
- Bently, Nick (2008).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Bollinger, Laurel (1994). Models for Female Loyalty: The Biblical Ruth i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13(2), 363-80.
- Calvin, J.(1536).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ge. Retrieved from <https://www.ccel.org/ccel/c/calvin/institutes/cache/institutes.pdf> (2020. 11.03)
- Doan, Laura (Ed.)(1994). *The Lesbian Postmoder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iffin, Gabrielle(1994). Acts of Defiance: Celebrating Lesbians. *It's My Party: Reading Twentieth-Century Women's Writing*. Ed. Gina Wisker. London: Pluto, 1994, 80-103.
- Joyce, James (1968).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 Low, Gail (2015). Publishing and Prizes, *The History of British Women's Writing, 1970-Present*. Eds. Mary Eagleton and Emma Parker. 81-95.
- Liotard, Jean-Franç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umi.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Onega, Susan (2006). *Jeanette Winterson*. Manchester: Manchester UP.
- Piper, John and Justin Taylor (Eds.)(2007).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 Pykett, Lyn (1988). A New Way with Words? Jeanette Winterson's Post-Modernism. *I'm Telling You Stories: Jeanette Winterson and the Politics of Reading*, Ed. Helena Grice and Tim Woods, Amsterdam: Rodopi, pp. 53-60.
- Rait, Susan (Ed.)(1994). *Volcanoes and Pearl Divers: Essays in Lesbian Feminist Studies*. London: Onlywomen Press.
- Veith, Gene Edward Jr.(1987). *Loving God with All Your Min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Wachtel, Eleanor. (1996) *More Writers & Company*. Vintage Canada.

Wells, David (2007).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in Piper, John and Justin Taylor(Eds.)(2007)*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1-49.

와크텔, 엘레너 지음/ 허 진 옮김 (2017). **작가라는 사람 1**. 서울: 엑스플렉스.

[Wachtel, Eleanor(1996). *More Writers & Company*. Trans. Huh Jin. Seoul: Explex.]

성서원 편집부 (2012). **관주 메모성경**. 개역개정. 서울: 성서원.

[Seonseowon Editing Dept. (2012). *The Memo Bible, New Revision*. Seoul: Seongseowon]

배만호 (2006). 지넷 윈터슨의『오렌지만이 유일한 과일은 아니다』(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서사기법. **새한영어영문학**. 53(4), 85-105.

[Bae, Man-ho (2006). Postmodern Narrative Technique i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Foreign Literature Studies*, 53(4), 85-105.]

포스트 시대 교회의 역할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중심으로-*

The Role of the Church in the Era of Postism -Centering o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김철수 (조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영국 소설가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의 첫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속의 포스트모던 소설의 주요 특징과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포스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의 비판과 대응의 근거로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을 주창한 보디 보챔(Vauddie Baucham)의 논지를 활용한다. 구약성경의 첫 여덟 권의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작품에는 성경의 내용이 작가의 삶의 궤적에 따라 패러디되면서 폐쇄적인 기독교 사회의 억압적인 면모를 조롱하고 있다. 또한, 전설이나 동화 등이 삽입되어 작품의 함축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소설'의 서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한다. 화자는 교회와 목사, 그리고 열성 신자인 자기 어머니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광신자'로 매도하며 조롱하고, 작품의 말미에서는 그 어머니의 표현의 변화를 근거로 레즈비언인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예배와 선교와 그리고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녀의 신앙과 봉사의 정신 속에서 '교회 같은 어머니'가 확인되었고, 포스트 시대에 신앙과 성도를 지켜 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바로 그 어머니 속에 구현되어 있다.

주제어: 지넷 윈터슨,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레즈비언 소설, 포스트모더니즘, 그리스도의 탁월성, 교회의 역할